

광동제약, 박상영 사장 전진배치… 지속가능 성장 속도 낸다

〈경영총괄〉

연구개발 등 전문성 기반 인사
박 사장, CSEO 등 주요 보직 역임
경영현안 총괄… 부문간 협업 주도



특히 박상영 부사장이 경영총괄 사장으로 업무 영역을 확대하며 시장과의 소통이 강화되고 기업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것이란 기대가 모인다.

박상영 사장은 서울경제신문 기자 출신으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10여 년간 출입하며 제약산업에 대한 풍부한 이해도와 경험을 쌓았다. 언론계를 떠난 후수도약품 총괄부사장과 회장비서실 사장, 홍보마케팅 전문 회사인 우리들씨앤알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경영 감각과 소통 역량을 겸비한 리더로 조직 내 입지를 다져왔다.

지난 2011년 광동제약에 합류한 이후에는 최고안전환경책임자(CSEO)와 감사, 법무, 언론 등을 담당하는 커뮤니케이션실장을 겸임하며, 회사의 경영 투명성과 대외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

특히 각 사업장의 안전·환경 관리 기준을 정비하고 ESG 경영 체계를 구축해 지속가능경영 기반을 마련하고, 조직 내 협업과 소통 문화를 정착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성과는 최근 자본시장에서 강조하는 ‘투명 경영’ 기조와 맞물려 주주 신뢰를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번 승진을 통해 박 사장은 회사의 주요 경영현안을 총괄하고 부문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광동제약은 “경영총괄 사장직 신설이 중장기 성장 전략의 실행력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반을 마련해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동제약은 이와 함께 회사는 의약연구개발과 인사가획 등 핵심 부문에 전문성을 갖춘 리더를 전진 배치했다.

의약연구개발본부 배기룡 상무이사를 전무이사로, 정대석 인사기획부문장

을 상무이사로 각각 승진 발령했다. 배전무는 GSK, MSD 등 주요 글로벌 제약사와의 파트너십 구축과 희귀의약품·유전자치료제 도입을 주도하며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고 회사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강화해왔다.

정대석 상무이사는 그동안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개편과 조직문화 개선을 추진하며 투명한 인사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킨 인물이다. 회사는 이번 내부 승진 인사를 통해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연구개발 기반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내부 결속력 제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각 부문의 전문성과 성과를 토대로 조직의 실행력을 높이고, 미래 성장 기반을 한층 견고히 다지는 것이 이번 인사의 핵심 방향”이라며 “안정된 경영 기조 아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신제품



아모레퍼시픽 설화수 홀리데이 한정판

아모레퍼시픽은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에서 ‘2025 홀리데이’ 한정판(사진)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한정판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따뜻한 행복을 전하는 설화수만의 브랜드 감성을 담아 겨울의 고요함 속에서 피어난 매화의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특히 진설크림 리치 설화 에디션은 눈 덮인 겨울 추위 속에서도 영롱하게 피어난 매화에서 영감을 받았다. 또 연말과 새해를 맞아 소중한 분께 달항아리의 고귀함과 특별함을 전달할 수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세포·유전자 분야 기술역량 입증

람다바이오로직스 ‘바이오텍 혁신상’ ODISEI 기반 비임상 패러다임 제시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자회사 및 파트너사인 람다바이오로직스(Lambda Biologics)가 글로벌 바이오 분야의 권위있는 시상식 ‘바이오텍 브레이크스루 어워드(BioTech Breakthrough Award)’에서 ‘세포 및 유전자 치료 혁신(Cell & Gene Therapy Innovation)’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BioTech Breakthrough Award는 미국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국제 바이오·생명공학 기술 평가 프로그램으로, 신약 개발, 진단 기술, 연구도구,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등 바이오 전 분야에서 뛰어난 혁신을 이룬 기업들을 선정한다.

람다바이오로직스는 인간 장기 모델을 고도화한 오가노이드 플랫폼을 기반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개최된 ‘바이오텍 브레이크스루 어워드(BioTech Breakthrough Award)’ 시상식에서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이경진 상무(왼쪽)와 안드레 거스 람다바이오로직스 CEO(오른쪽)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으로 차세대 세포·유전자 치료제(CG-T)의 예측 개발을 획기적으로 앞당기고, 바이오산업 내 중개 연구(Translational Research)를 고도화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이번 수상은 오가노이드사이언

스가 보유한 오가노이드 기반 재생치료제(ATORM) 기술과 신소재·신약 효능 평가 플랫폼(ODISEI)이 기반이 됐다.

ODISEI는 암 오가노이드 효능평가 플랫폼 ‘ODISEI-ONC’를 중심으로 면역세포 공배양, 중앙 미세환경(TM-E) 재현, 환자 맞춤형 오가노이드 분석 등 실제 인체 조건을 높은 정밀도로 모사하는 기술이 강점이다. 특히 국내 최초 상용화에 성공한 평가 솔루션으로, 동물실험 의존도를 대폭 줄이면서 실제 환자 반응을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차세대 비임상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인정을 받았다.

안드레 거스(Andre Gerth) 람다바이오로직스 CEO는 “최근 미국 국립보건원(NIH)이 ‘표준화된 오가노이드 모델링(Standardized Organoid Modeling·SOM) 센터’를 출범시키며 오가노이드 기반 질병 모델링을 차세대

연구 인프라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흐름과도 맞물린다”며 “앞으로도 중개 과학과 개인 맞춤형 의학 발전에 기여해 글로벌 생명과학 생태계에 혁신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이번 수상으로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서 오가노이드 기반 플랫폼이 비임상-임상 전 단계의 표준 도구로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 관계자는 “동물 실험 대체 기술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람다바이오로직스의 글로벌 경쟁력은 더욱 부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람다바이오로직스는 ATORM의 임상 유럽과 ODISEI 플랫폼을 전 세계 제약사, 병원, 연구기관에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대웅제약, ‘K-AI 신약개발 사업’ 참여

박성수 대표 “신약 개발 생태계 기여”

대웅제약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5년도 K-AI 신약개발 전임상·임상 모델개발 사업’의 공동 연구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국내 신약개발 전 주기 생태계 조성의 일환으로, 대웅제약은 ‘역이행 연구 설계 인공지능 소프트웨어(AI SW)’ 개발 과제에 참여한다. 이번 과제는 삼성서울병원이 주관하며 강북삼성병원, 대웅제약 등 병원 및 제약기업이 함께하는 다기관 공동연구 체계로 운영된다.

대웅제약은 향후 4년간 항암·대사성 질환 연구에서 확보한 비임상 데이터를 AI 모델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한다. 또한 자사 신약센터에서 생산되는 연구 데이터를 활용해, 개발된 AI 소프트웨어를 실제 연구에 적용하는 실증 작업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과제를 통해 대웅제약은 AI를 활용해 동물실험 모델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하고, 비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임상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 역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박성수 대웅제약 대표는 “실제 모델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연구 현장에서 직접 AI 기술의 발전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대웅제약의 연구개발 역량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AI를 기반으로 한 혁신적 신약 개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엘비엠, 근로계약 등 인사제도 재정비

인력 충원 등 전사적 개선 계획 밝혀

런던베이글뮤지엄 운영사 엘비엠이 근로환경 논란 이후 인력 충원, 근로시간 관리 강화, 안전보건 시스템 정비 등을 포함한 전사적 개선 계획을 내놨다. 강관구 대표는 “근로환경을 근본부터 재점검하겠다”고 밝히며 재발 방지 의지를 강조했다.

회사 측은 우선 HR 전문가 영입을 통해 근로계약 구조와 인사제도 전반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수습 기간 운영 방식 및 계약 전환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외부 컨설팅을 통해 정규직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매장 인력 공백을 즉시 지원하는 별도 조직을 운영하고, 업무량이 많

은 시기에는 기존보다 약 1.5배 수준으로 인력을 확보해 근로시간 준수 체계를 마련한다.

근무기록 관리 방식도 강화된다. 스케줄표와 연장근무 기록에 더해 매장 마감 보안시스템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본사가 다음날 실제 근무 종료시간을 교차 검증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지문인식 기반 ERP를 도입해 실시간 근무기록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안전보건 체계도 보강한다. 안전보건 전담 담당자를 두고 교육과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직원 상해보험 가입과 산재 원인 분석을 병행해 산재 발생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애경산업 ‘루나’ 롱래스팅 버블링 썸 글로스

애경산업은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 루나가 무신사에서 고평택·고점도 입술 제품 ‘롱래스팅 버블링 썸 글로스’를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루나 롱래스팅 버블링 썸 글로스는 ‘슈퍼 사인 포뮬라’를 처방해 어느 각도에서든 빛나는 입술을 연출할 수 있다. 멘톨 성분 함유로 입술에 자연스러운 볼륨과 입체감까지 더해준다. 또 쏙쏙한 제형이 입술에 밀착돼 오랜 시간 유지된다.

내용물을 풍부하게 머금은 ‘대형 틱’을 탑재해 여러 번 덧바를 필요 없이 한 번만으로도 간편하게 사용 가능하다.

/이청하 기자